

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 
20-12-4  
(공개, 의결)

---

# 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 종합 금융지원방안

---

2020. 7. 30.

관 계 부 처 합 동

# 순 서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종합 금융지원방안 .....	2
1. 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 선정 .....	3
[혁신기업 국가대표 1회차 선정 현황] .....	4
2.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.....	5
3. 민간자금 후속투자 여건 조성 .....	8
III. 향후 추진일정 .....	9

## I. 추진 배경

- 산업별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하여 우리 경제의 장기·안정적 성장기반을 다져나갈 필요
- 4차 산업혁명,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비대면(언택트), 디지털化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·근본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
  - 개별 산업부문의 변화를 읽어내고, 산업내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금융-산업부문간 협업이 중요
  - ① (산업 이해도) 각 산업의 기술혁신, 글로벌 수요, 디지털·그린뉴딜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산업부문의 협력이 필요
  - ② (기업 혁신성)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·특허 등의 혁신성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산업부문의 전문성 활용 필요
- 또한, 혁신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
  - 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정책금융(대출 - 보증 - 투자) 및 민간 투자자금 등이 종합적·유기적으로 충분히 지원될 필요

➡ 금융부문 - 산업부문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해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「한국판 뉴딜」 성공의 기초를 마련

- \* ① 금융부문은 산업부문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고,
- ② 산업부문은 종합적인 금융지원 채널을 확보하는 체계 마련

## Ⅱ. 종합 금융지원 방안

### < 추진 방향 >

- ◇ 산업부문별 이해도가 높은 기관(관계부처, 단체 등)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 선정
- ◇ 선정된 혁신기업의 혁신성·기술성이 검증된 점을 감안하여, 기존의 정책금융 여력(40조원)을 활용하여 종합금융 적극 지원
- ◇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마중물(anchor)로 삼아, 민간 투자자금의 후속투자가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



## 1 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 선정

- ◇ 다양한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혁신성 · 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(3년간 1,000개+a)
- ◇ 각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기관(관계부처, 단체 등) 및 민간 투자시장에서 선별경험을 갖춘 VC 등의 역량을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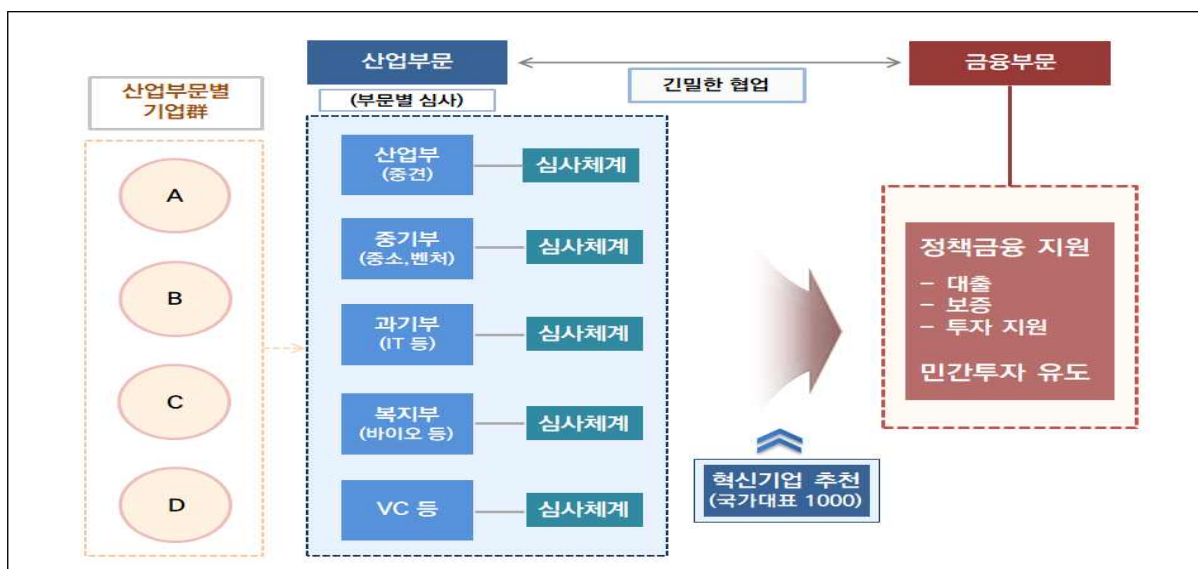
□ 관계부처(산업부 · 중기부 등) 등이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, 자체심사를 통해 혁신성 높은 기업 선정

- 디지털 · 그린 뉴딜 부문\*, 신산업(미래차, 바이오, 시스템반도체 등), 소재 · 부품 · 장비 등 다양한 산업부문을 포함

\* (디지털 뉴딜)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 
(그린 뉴딜) ①그린 리모델링 ②그린 에너지 ③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

- 신산업으로 사업개편하는 혁신기업, 해외 노하우 등을 가지고 국내로 리턴하는 기업 중 혁신성 높은 기업도 적극 포함

□ 민간 투자시장에서 기업 선별 경험을 갖춘 주요 VC 등을 통해서도 신산업 부문의 혁신성 높은 기업을 선정



## < 혁신기업 국가대표 1회차 선정 현황 >

- 산업부·중기부 협업을 통해 각 분야의 특허, 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32개 혁신기업을 선정  
(중소기업 19개사, 중견기업 13개사)
  - \* 산업부(32개)·중기부(25개)가 검토한 총 57개사 중 지원가능성이 높은 32개사를 우선 혁신기업으로 선정 → 나머지 25개사는 연내 추가검토 예정
  - 산업부가 추천한 32개사 중 미래차·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 부문에 기술력을 갖춘 중소·중견기업 19개사를 선정
  - 중기부가 추천한 25개사 중 소재·부품·장비 제조업 부문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13개사를 선정
- 선정된 32개 혁신기업 중 자금 필요성을 제기한 19개사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지원 심사 진행 중

### ※ 주요 금융지원(예정) 기업 사례

- ① ○○사 (시스템반도체 패키징, 중견기업)
  - 시스템반도체 주요 공정(패키징)에 핵심기술 보유(산업부 선정)
  - 산은은 동 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감안하여 내부 평가등급을 상향(A+→AA-)하고, 운영자금 대출지원(150억원, △0.6% 금리감면)
- ② △△사 (건강기능식품 제조업, 중소기업)
  - 생약재 조성물 관련 특허 다수 보유(산업부 선정)
  - 차입금 비율이 높은 등 재무상황은 다소 좋지 않으나, 신보는 동 기업의 혁신성·기술력 등이 우수한 점을 심사시 적극 반영  
→ 8월 중 P-CBO 지원(40억원) 예정
- ③ □□사 (자동차부품 제조업, 중소기업)
  - 자동차 연료튜브 등 관련 다수 특허·디자인권 보유(중기부 선정)
  - 최근 당기손실 등으로 재무상황이 다소 좋지 않으나, 기보는 높은 기술성 등 감안하여 보증지원(20억원) 적극 심사 중(재무심사 완회)

## 2

##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

- ◇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혁신성·기술성을 감안,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
- ◇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·보증·투자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, 한도 확대·우대금리 등 금융지원상 혜택도 부여
- ◇ 금융지원 외 컨설팅·입주공간 제공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

## ① 혁신성·기술성 등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

- 선정된 기업은 혁신성·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,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한 대출·보증 등 지원
- 재무상태 등이 다소 좋지 않은 혁신기업도 혁신성·기술성 등이 검증된 점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금융 지원(산은·신보)

## ※ 참고 : 산업은행 「신산업 심사체계」 주요 내용

- (대상) 신성장 부문 중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일반심사가 곤란한 기업 (사업화 진행중, 시장확산 초기단계 등)
- (심사요건) 기술경쟁력, 성장잠재력, 성공·회수가능성 등
- (절차) 신산업 전담 심사조직(심사위원회)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
- 일반적인 여신심사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도, 혁신성·기술성 등 심사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최대한 적극 심사(기은 등)
- 혁신성·기술력 등에 따른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 부여(고의·중과실 없는 경우 등)를 통해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 태도를 유도

## ② 기업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·보증·투자 등 충분히 지원

□ (대출) 자금수요(시설·운영자금 등)에 맞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(3년간 15조원 재원 활용)

○ (한도확대)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출한도 확대

\* (산은) (기존)시설자금 2,000억원·운영자금 500억원 → (확대)한도 배제  
(수은) (기존)수출실적의 50~90% → (확대)수출실적의 100%

-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은 산업별 익스포저 적용도 배제(산은)

\*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총 여신한도(35개 산업 한도 관리 중)  
(예 : 자동차 11.95조원, 전자부품 2.91조원, 의약·의료 2.79조원 등)

○ (우대금리) 혁신성·기술성 등 감안하여 금리 감면(산은, 수은 등)

\* (산은) 최대  $\Delta 0.7\%p$  감면 (수은)  $\Delta 0.5\%p \sim \Delta 1.0\%p$  감면

□ (보증) 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통해 은행권 대출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(3년간 10조원 재원 활용)

○ (한도확대) 충분한 규모의 자금을 이용하도록 보증한도 확대

\* (신보) (기존)보증한도 30억원 → (확대)150억원

□ (투자) 성장금융 등의 정책펀드 등을 활용하여 혁신기업에 대해 투자 지원 (3년간 15조원 재원 활용)



### ③ 혁신활동을 촉진/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非금융지원 병행

□ 재무상황이 좋지 않거나, 신용도가 낮은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경영/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·노하우 적극 제공

○ 컨설팅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해, 종합적인 경영진단 후 기업 사정에 맞추어 재무·사업전환·조직문화 등 컨설팅\* 제공(기은·신보)

- \* ① (자산·재무관리) M&A, 재무구조 개선 등
- ② (사업 전환) 매출·원가분석 등 통한 사업개편
- ③ (조직문화) 인사제도, 조직 활성화 등 관련
- ④ (디지털 전환) 디지털 마케팅 노하우, 국내외 판로개척 등 지원

○ 정책금융기관의 채용포털(신보 '잡 클라우드', 기은 '잡 월드') 등을 통해 신규 인력채용 등도 지원(무료)

□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 인프라 등도 적극 지원

○ 대표적인 해외 오픈마켓(아마존(US, JP) 등) 입점 지원, 페이스북·인스타그램 등 활용한 해외 마케팅 노하우 등 교육 지원(신보)

○ 해외 주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\*등을 활용하여 해외 고객층에 대한 홍보 및 필요자금 모금(funding) 등도 지원(신보)

\* 킥스타터·인디고고(美), 마쿠아케(日), 젱젱(대만) 등

- \* ① 현지 클라우드펀딩 입점절차(설명회, 신청 등) 지원
- ②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입점시 사업설명 영상 등 제작 지원 등

### 3 민간자금 후속투자 여건 조성

- ◇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(anchor) 역할을 통해 민간 투자자가 혁신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
- ◇ 국내외 VC와 협의채널, 투자 설명회(IR) 등을 통해 혁신기업에 민간 투자자금이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

- 정책금융의 마중물(anchor) 역할을 통해, 민간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혁신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

\* 예 : 성장금융을 통한 투자 지원 → 민간투자 유입 유도

-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- (대상) 혁신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(1,000개) 중 혁신성 등이 우수하고 대규모 자금 유치가 필요한 기업(연간 30개+a)

- (지원) 국내외 VC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해 민간투자 유치 지원

- 산은과 국내 대형 VC 간 협의체("MEGA7") 등을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가능성 높은 혁신기업에 투자유치 기회 제공

\* 국내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·정책금융의 대규모 공동투자를 위해 산은·국내 상위 7개 VC로 결성한 협의체('19.4월 출범)

- 국내외 투자설명회(산은 「NextRound\*」 등)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금이 혁신기업에 적극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

\* 유망 스타트업·벤처기업과 국내외 VC가 참여하는 정기적 IR 플랫폼 (매주 3회 개최, '16~'20년 중 284개 기업이 1.7조원 투자 유치)

- 중·장기적으로, 기관투자자·민간 투자자(개인 포함) 등이 혁신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

### Ⅲ. 향후 추진일정

#### □ 3년간 1,000개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

- 금년 하반기 중 200개 혁신기업을 차질없이 선정
  - 디지털·그린뉴딜 관련 혁신성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
  - 과기부(언택트, IT 등), 복지부(바이오·제약) 등 협업부처 다각화
  - 금융사·VC 등을 통해서도 우수 기업 추천·선정
- '21~'22년 중 매 반기마다 200개+a 기업을 선정

#### □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금융지원

- (금융지원) 기 선정 기업(32개)에 신속히 정책금융 지원
  - \* 자금 필요성을 제기한 19개 기업은 신속히 필요한 금융지원 실시(3분기내)
  - 나머지 13개 기업도 자금 필요성 제기시 신속히 검토후 금융 지원
- (非금융지원) 컨설팅 등 원하는 혁신기업은 즉시 지원(지속)
- (민간투자) 민간투자 유치 기회(MEGA7 등) 등도 제공(연내 2회 이상)

#### □ 자금수요 모니터링 등 지속 사후관리 및 지원 과정에서 기업의 불편사항 등 반영하여 제도 개선 노력 등도 지속

##### < 사후 관리 주요 내용 >

- 「정책금융협의체\*」를 통해 경영환경·자금사정 등 지속 모니터링
  - \*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(산은, 기은, 수은, 신보, 기보, 성장금융 등)으로 구성
  -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상황,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 청취
  - 지원이 이루어진 혁신기업의 투자·고용확대 상황, 부실여부 등도 모니터링하여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관리
- 필요시 후속 금융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혁신활동 지원
- 각 부처 등은 선정된 기업의 혁신성, 경영실태 등을 매년 재점검하여, 미흡한 기업은 혁신기업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기업을 선정